

## 정신장애인의 고용 여부가 장애수용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박 초 원\*

서울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연구원

현 명 호†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본 연구는 전국의 만 20세 ~ 만 67세 사이의 성인 정신장애인 524명을 대상으로( $F = 205$ ,  $Mage = 38.67$ ), 고용 여부와 장애수용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알아보았다. 장애인고용패널조사(PSED) 2차 웨이브 4차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Hayes(2022)의 SPSS PROCESS Macro 4번 모델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자기효능감이 고용 여부와 장애수용의 관계를 유의하게 매개하였다. 고용 여부가 장애수용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해당 결과는 정신장애인이 고용과 자기효능감을 통해 이상적인 회복에 가까워지도록 하는 제도적 지원의 확장과 구체화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주요어 : 정신장애, 고용, 직업재활, 자기효능감, 장애수용

\* 현재 세브란스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 재직 중.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현명호 /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 (06974) 서울시 동작구 흑석로 84

E-mail : hyunmh@cau.ac.kr

 Copyright ©2023, Clinical Psychology in Korea: Research and Practice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 서론

자살 및 자해 문제가 계속해서 불거지며 사회적으로 충분한 관심을 받지 못하던 ‘정신장애’에 많은 눈길이 모아지고 있다. 정신장애란, 정신이나 행동 또는 정서 질환의 증상으로 인해 사회적, 학업적, 직업적, 기타 중요한 영역에서 불편감이나 손상이 초래되는 상태를 말한다(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미디어를 통해 흔히 접하는 조현병, 우울장애, 불안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정신장애의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일차적으로 유발되는 정신병리 증상은 약물이나 심리치료에 의해 조절될 수 있다. 그러나 이차적으로 발생하는 직업기술, 생활기술, 사회기술의 저하에는 적절한 지원과 함께 전문가의 개입이 요구된다. 국내 정신장애 평생 유병률은 25.4%로 보고된 바 있다(국립정신건강센터, 2020). 해당 수치는 이미 많은 사람이 일생에 한 번 이상 정신장애를 경험하고 있고, 또 미래에 경험하게 될 수도 있다는 실상을 보여준다. 이러한 가능성은 신체장애와는 구별되는 정신장애에 대한 이해 및 재활 서비스의 확장이 필수적임을 시사한다.

최근에는 정신재활을 설명하는 회복(recovery) 모델이 적극적으로 수용되고 있다. 회복 모델은 기존의 치료 모델과 달리 완벽하고 깨끗한 정신 상태를 추구하지 않는다. 오히려 만성 정신장애와의 공존 상태를 인정하도록 하는 대안적인 관점을 제시한다. 이는 정신장애인이 새로운 가치관과 정체성을 확립하고 목적의식을 회복하여 변화된 삶을 살아가도록 독려한다(Anthony, 1993). 회복은 일시 중지, 인식, 준비, 재구성, 성장의 순차적인 단계로 이루어지지만, 개개인의 독특한 경험이기에 단

선적으로 묘사되지는 않는다(Andresen, Caputi, & Oades, 2006; Deegan, 1988). 그 과정에서 장애수용, 사회적 지지, 통제감은 정신장애인의 회복에 도움이 되는 공통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Davidson & Strauss, 1992).

회복의 핵심 가치 중 ‘자신의 질병과 장애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는 장애수용(disability acceptance)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장애수용의 정의를 살펴보면 ‘신체나 정신 능력이 상실되었음을 인정하는 정도’(Li & Moore, 1998), ‘장애를 감내하고 주체적으로 극복해가는 태도로서 자신의 가치를 평가 절하하지 않는 상태’(김동주, 고민석, 2012; 박경수, 이석호, 2015) 등이 있다. 장애인이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자세는 생활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대인관계 능력에도 도움이 되어 적극적인 사회 참여로 이어질 수 있다(김자경, 신보희, 장성욱, 2017; 김종일, 2013). 다시 말해 장애수용은 장애인의 긍정적이고 만족스러운 삶을 예측하는 변인이다(김가희, 이종남, 한상미, 2019).

정신장애인이 자신의 장애를 수용하기까지 직업의 역할이 중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먼저 심리 치료와 함께 직업재활을 진행했을 때 정신장애인의 증상이 완화되고 전반적인 기능이 향상되었다는 연구 결과가 다수 존재한다(Anthony, Rogers, Cohen, & Davies, 1995; Drake & Wallach, 2020; Lagerveld, Blonk, Breninkmeijer, Wijngaards-de Meij, & Schaufeli, 2012; Strong, 1998). 한 연구에서는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장애 관련 변인을 통제한 상태에서 고용 관련 변인이 장애수용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정승원, 2012). 그뿐만 아니라 고용은 정신장애인의 자신감과 자존감 증진에 효과적이고, 지역사회 내 소속감을 느끼게 하

여 진정한 사회 통합을 이루는 데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손명자, 2006; Dunn, Wewiorski, & Rogers, 2008). 정신장애인이 ‘정상적인 삶’과 ‘자기 가치 실현’을 직업재활의 동기로 꼽는다는 점에서(안은선, 서지민, 2015) 고용 경험을 통해 자연스럽게 장애수용을 성취하고자 하는 욕구를 살펴볼 수 있다. 정신재활의 과정에서 직업활동이 적극적으로 장려되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정신장애인은 경제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자기효능감이라는 심리적 자원을 얻을 수 있다(Tsang, Fong, Fung, & Corrigan, 2010). 자기효능감이란 어떠한 행동을 계획하고 수행하는 능력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말하며, ‘할 수 있다’고 느끼는 정서적 요소를 포함하는 개념이다(Bandura, 1986; Latham & Locke, 1991). 장애인의 경제활동은 개인의 능력과 가능성에 대한 확신을 가지도록 한다(Ackerman & McReynolds, 2005). 정신장애인이 직업에 적응하는 정도는 자기효능감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어서(남연희, 채인석, 2009) 실제로 3달간의 고용을 경험한 중증 정신장애인에게서 자기효능감이 유의하게 상승하기도 하였다(Siu, Tsang, & Bond, 2010).

일반적으로 정신장애인은 다양한 편견과 차별에 자신을 비추어 보고 타인의 고정관념에 동조하여 자신을 평가하는 태도, 즉 자기 낙인(self-stigma)을 내재화한다(Corrigan & Rao, 2012). 자기 낙인은 자존감과 자기효능감을 낮추기 때문에(Watson, Corrigan, Larson, & Sells, 2007) 정신장애인의 성장과 변화를 방해하는 핵심요인으로 간주된다(Ritsher & Phelan, 2004). 자기효능감 자체는 개인이 자신의 상태를 인정하고 삶에 대한 낙관적인 태도를 유지하도록 하여 장애수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신

주영, 최은영, 공마리아, 2015; 양혜린, 고윤정, 박연미, 이혜란, 2017). 따라서 자기 낙인의 특징을 가지는 정신장애인이 고용을 통한 자기효능감을 경험할 시 더 수월하게 회복 지향적 관점에 들어서게 될 수 있다(강석임, 2011). 이를 증명하듯 장애인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이 장애수용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윤미리, 남예지, 홍세희, 2019).

종합해 보면, 취업하거나 고용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장애인일수록 장애수용의 수준이 높는데(정승원, 2012), 이러한 경제활동은 정신장애인을 단순 수혜자의 역할에서 벗어나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기효능감을 경험하게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정신장애인의 자기효능감 향상은 적극적인 사회참여로 이어져 이상적인 회복에 가까워지도록 한다(Maujean & Davis, 2013). 결과적으로 정신장애인의 직업활동은 정신장애가 삶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아님을 이해하고 자신의 상태를 수용하도록 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안타깝게도 국내 정신장애인의 고용률은 인구수 대비 15.7%에 그치고 있다(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이는 여타 장애인 고용률에 비해 매우 낮은 수치이다. 장기간의 실직 혹은 미취업이 심리적 안녕감과 신체적 웰빙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McKee-Ryan, Song, Wanberg, & Kinicki, 2005), 취약 계층에 해당하는 정신장애인의 직업재활은 사실상 원활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지역사회 내에서 정신장애인의 고용 기회를 창출하고 이와 관련한 서비스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해당 과정의 중요성을 뒷받침하는 연구가 더욱 축적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는 장애수용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으나, 장애수용이라는 개념은 장애인이 일평생 여러 경험을 통해 이루어가는 유기체적인 목표이다. 고용과 같은 사회적 경험은 자신의 장애를 수용하도록 하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장애수용을 종속변인으로 설정하고, 이에 대한 고용 여부의 영향과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 연구 방법

#### 연구 모형 및 가설

본 연구는 국내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고용 여부와 장애수용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살펴보았다. 연구 모형은 그림 1과 같다.

**가설 1.** 정신장애인의 고용 여부는 장애수용을 유의하게 설명할 것이다.

**가설 2.** 정신장애인의 자기효능감은 장애수용을 유의하게 설명할 것이다.

**가설 3.** 정신장애인의 고용 여부와 장애수용의 관계를 자기효능감이 매개할 것이다.

#### 연구 대상

본 연구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에서 실시한 장애인고용패널조사(PSED) 2차 웨이브 4차 자료를 활용하였다. 2016년부터 시작된 PSED는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여 등록된 장애인의 경제활동 상태를 매년 추적하는 종단조사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PSED 2차 웨이브 4차 자료는 2019년 5월부터 8월, 즉 COVID-19 이전에 수집된 가장 최근의 자료라고 할 수 있다. 해당 조사에는 국내 거주 중인 만 15세 ~ 만 67세의 등록 장애인 4,577명이 참여하였으며, 그중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정신적 장애가 있는 만 20세 이상 성인 524명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 측정 도구

##### 인구사회학적 특성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 성별, 연령, 결혼 상태, 학력을 분석하였고, 이 중 연령, 결혼 상태, 학력이 장애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나(정승원, 2012) 통제 변수로 설정하였다.

##### 고용 여부

고용 여부는 ‘취업자’, ‘미취업자’로 구분되었고, 취업자의 경우 고용의 형태는 임금근로자(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로 분류되었다.

##### 자기효능감

어떤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서 스스로에 대한 일반적인 기대와 신념을 평가하는 척도로 Schwarzer와 Jerusalem(1995)이 개발하였다.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4점(매우 그렇다)으로 평정하는 4점 Likert 척도이다. 모름/응답 거절은 결측치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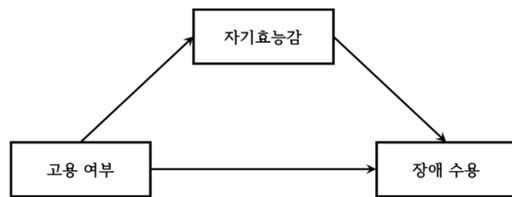


그림 1. 연구 모형

처리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의 Cronbach's  $\alpha$ 는 .97로 나타났다.

### 장애수용

자신의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정도를 평가한다. Kaiser, Wingate, Freeman과 Chandler(1987)가 개발한 장애수용 척도(Acceptance of Disability Scale)의 9문항과, 백영승, 김성희, 유미, 김춘수(2001)가 개발하고 강용주, 박자경, 그리고 구인순(2008)이 타당화한 자아수용검사에서 장애 극복 요인에 해당하는 3문항을 사용하였다.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매우 그렇다)으로 평정하는 5점 Likert 척도이다. 총 12개의 문항 중 3개는 역채점 되었고, 모름/응답 거절은 결측치로 처리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의 장애를 수용하는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장애수용의 Cronbach's  $\alpha$ 는 .84로 나타났다.

### 자료 분석

자료 분석에는 SPSS 26.0 통계 프로그램이 사용되었다. 먼저 기술통계와 독립표본  $t$  검증을 시행하고, 주요 변인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는 Hayes(2022)의 SPSS PROCESS Macro 4번 모델로 분석하였다. PROCESS Macro는 경로분석 접근법에 기반하여 매개(mediation), 조절(moderation), 조건부 과정분석(conditional process analysis)을 손쉽게 모델링 해주는 프로그램이다. Sobel 검증과 비교했을 때, PROCESS Macro는 Bootstrapping 방식으로 분포의 왜곡 및 정규성 위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연구 결과

### 인구사회학적 특성

연구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참여자의 평균 나이는 38.67세로 절반 이상이 남성이며( $M = 319, 60.9\%$ ), 전체의 80.9%가 미혼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의 경우 대졸 이상이 9.9%로 집계되었다.

###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와 평균차이

모든 변인은 Kline(2015)의 기준에 따라 정규성이 충족되었다. 고용 여부의 경우 취업자는 135명(25.8%), 미취업자는 389명(74.2%)으로 나타났으며, 자기효능감의 평균은 1.96점( $SD = .70$ ), 장애수용의 평균은 2.80점( $SD = .46$ )으로 계산되었다.

고용 여부에 따른 자기효능감 수준의 차이를 독립표본  $t$  검증한 결과,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정신장애인이 그렇지 않은 정신장애인보다 더 높은 수준의 자기효능감을 보였다 [ $F = 1.80, t(488) = -6.73, p < .001$ ]. 고용 여부에 따른 장애수용 또한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정신장애인에게서 더 높게 나타났다 [ $F = 1.65, t(476) = -3.59, p < .001$ ].

### 주요 변인 간 상관관계

고용 여부가 이분형 변수이기 때문에 점 양분(point-biserial)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상관분석 결과는 결측치에 따라 비교된  $n$  수가 달랐다(표 3). 고용 여부, 자기효능감, 장애수용 간의 상관관계는 모두  $p < .001$  수준에서 유

표 1. 인구사회학적 특성(N = 524)

변인	범주	빈도(n)	백분율(%)
성별	남	319	60.9
	여	205	39.1
연령	만 20 ~ 29세	155	29.6
	만 30 ~ 39세	127	24.2
	만 40 ~ 49세	120	22.9
	만 50 ~ 59세	89	17.0
	만 60 ~ 67세	33	6.3
결혼 상태	미혼	424	80.9
	기혼 및 동거	52	9.9
	이혼 및 사별	48	9.2
학력	중졸 이하	174	33.2
	고졸	298	56.9
	대졸 이상	52	9.9
고용 여부	취업	135	25.8
	미취업	389	74.2

표 2.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와 평균 차이

변인	고용 여부	n	M	SD	df.	t
자기효능감	취업	129	2.30	.71	488	-6.73***
	미취업	361	1.84	.65		
장애수용	취업	130	2.92	.44	476	-3.59***
	미취업	348	2.75	.46		

표 3. 주요 변인 간 상관관계(n = 474 ~ 490)

	1. 고용 여부	2. 자기효능감	3. 장애수용
2	.29***	-	
3	.16***	.50***	-

\*  $p < .05$ , \*\*  $p < .01$ , \*\*\*  $p < .001$

의하였다.

고용 여부가 장애수용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Hayes(2022)의 SPSS PROCESS Macro 4번 모델을 활용하여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표 4 ~ 6, 그림 2와 같다. 모형에는 연령, 결혼 상태, 학력이 공변인으로 투입되었다. 고용 여부는 자기효능감에 정적 영향을 미치고( $B = .41, SE = .07, t = 5.90, p < .001$ ), 자기효능감은 장애수용에 정적 영향을

미쳤다( $B = .33, SE = .03, t = 11.60, p < .001$ ). 고용 여부와 장애수용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가 신뢰구간에 0을 포함하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관찰되었고( $B = .13, Boot SE = .03, Boot LLCI = .08, Boot ULCI = .19$ ), 이와 동시에 고용 여부가 장애수용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B = .00, SE = .04, t = .07, p = .94$ ). 해당 결과는 정신장애인이 고용된 상태일 때 자기효능감을 통하여 장애수용이 성취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표 4. 고용 여부가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구분	$\beta$	<i>B</i>	<i>SE</i>	<i>t</i>	LLCI	ULCI
(상수)	-	1.3365	.1482	9.0181***	1.0453	1.6277
고용 여부	.5930	.4102	.0695	5.9031***	.2737	.5468
연령	.0236	.0129	.0281	.4602	-.0422	.0681
학력	.1763	.1983	.0512	3.8736***	.0977	.2989
결혼 상태	.1129	.1061	.0462	2.2978*	.0154	.1968

$F = 15.2373^{***}, R^2 = .1150$

\*  $p < .05$ , \*\*  $p < .01$ , \*\*\*  $p < .001$

표 5. 고용 여부와 자기효능감이 장애수용에 미치는 영향

구분	$\beta$	<i>B</i>	<i>SE</i>	<i>t</i>	LLCI	ULCI
(상수)	-	2.2226	.0976	22.7789***	2.0309	2.4143
고용 여부	.0068	.0031	.0438	.0710	-.0829	.0891
자기효능감	.4904	.3254	.0281	11.5958***	.2703	.3806
연령	-.0767	-.0279	.0171	-1.6357	-.0615	.0056
학력	.0351	.0262	.0316	.8284	-.0359	.0883
결혼 상태	-.0233	-.0145	.0282	-.5155	-.0700	.04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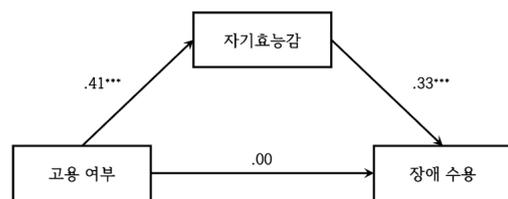
$F = 32.7798^{***}, R^2 = .2594$

\*  $p < .05$ , \*\*  $p < .01$ , \*\*\*  $p < .001$

표 6. 효과분해와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 결과

	$\beta$	<i>B</i>	<i>SE</i>	LLCI	ULCI
<b>총 효과</b>					
고용 여부→장애수용	.2975	.1366	.0479	.0425	.2307
<b>직접효과</b>					
고용 여부→장애수용	.0068	.0031	.0438	-.0829	.0891
	Partial $\beta$	<i>B</i>	Boot <i>SE</i>	Boot LLCI	Boot ULCI
<b>간접효과</b>					
고용 여부→자기효능감→장애수용	.2908	.1335	.0261	.0844	.1874

\* $p < .05$ , \*\* $p < .01$ , \*\*\* $p < .001$



\*\*\* $p < .001$

그림 2. 고용 여부와 장애수용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 논 의

본 연구는 전국의 만 20세 ~ 만 67세의 성인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고용 여부와 장애수용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살펴보았다. 해당 모형에서 자기효능감은 고용 여부와 장애수용을 연결하는 유의한 매개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고용 여부가 장애수용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결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신장애인의 고용 여부가 자기효능감을 설명하였다. 비임금근로자를 포함하여 현재 취업 상태인 정신장애인은 미취업 정신장애인보다 자기효능감이 더 높았다. 이는 Siu

외(2010)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본 연구의 참여자는 모두 중증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정신장애 증상이 심각할수록 생활 기능은 약화되고 사회적 차별을 경험할 가능성은 커진다(고민석, 김동주, 2013). 그 과정에서 형성되는 자기 낙인은 자기효능감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Brohan, Elgie, Sartorius, Thornicroft, & GAMIAN-Europe Study Group, 2010). 다행스럽게도 고용 및 직업재활의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정신장애로 인해 뒤처지고 무능력하다’는 낙인에 직접 도전하는 기회가 된다. 정신장애인이 자신의 강점과 자원을 활용하여 경제활동을 실현한다면 이들의 자기효능감이 증진될 것이다. World Health Organization(2011)은 장애인에게 적절한 환경과 훈련이 주어지면 거의 모든 직업에서 생산적인 결과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신장애인의 증상 특성상 학업을 오래 유지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개인 맞춤형 직업 교육, 훈련 및 재활을 활성화하는 것이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겠다. 한편, 고등학교 수준 이상의 교육을 받은 정신장애인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본 능력이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Um & Choi, 2022). 조기 개입의 차원에서 정신장애인이 고등교육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지원이 이들의 자기효능감 증진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정신재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정신장애인의 자기효능감이 장애수용을 유의하게 설명하였다. 장애를 수용한다는 것은 장애와 함께하는 새로운 정체감을 형성한다는 의미이다(Deegan, 1988). 여기에는 자신의 장애를 인정하는 것부터 장애로 인해 달라지는 삶에 적응하고 그에 따른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는 과정이 포함된다. 이러한 큰 변화에는 그에 부합하는 계기가 있기 마련이다. 본 연구 결과는 성공 경험, 즉 여러 성취를 통해 느낄 수 있는 자기효능감이 정신장애인의 장애수용을 촉진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외상성 뇌 손상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환자 자신이 외상을 이겨낼 수 있다고 믿는 수준에 따라 뇌 손상에 적응하는 정도가 달라진다(Yehene, Lichtenstern, Harel, Druckman, & Sacher, 2020). 본 연구의 결과와 같은 맥락에서, 개인이 효능감을 느끼고 스스로에 확신을 가지는 것이 ‘장애를 인정한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정신장애인은 치료와 보호의 단순 수혜자 혹은 위험한 대상으로 여겨져 왔고, 정신재활도 병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당사자가 일상생활에서 효능감을 느낄 기회가 충분하지 않았다. 이러한 실정에 관하여 국가인권위원회(2021)는 2016년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이후 현재까지 국내 정신장애인의 교육, 여가, 노동 등을 포함하는 사회권이 적절히 보장되지 않고 있음을 명시하였다. 정신장애인의 진정한 사회 통합을 위해 그들이 자기효능감을

경험하도록 하는 다양한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더불어, 지역사회 활동부터 정신건강 정책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자리까지, 정신장애 당사자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되고 공유되도록 하는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정신장애인의 고용 여부와 장애수용의 관계를 자기효능감이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 여부가 장애수용에 미치는 직접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해당 결과는 정신장애인이 경제활동에 참여하면서 자기효능감을 느낄 때 장애수용에 가까워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본 연구의 ‘취업한 정신장애인’에 비임금근로자가 포함되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직무를 완수하는 과정 자체 혹은 직무에 뒤따르는 긍정적인 평가나 보상은 정신장애인에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통제감을 부여하고, 개인의 능력 범위에 대해 낙관적으로 재고할 기회를 제공한다(Fabian, 2000). 그렇게 경험한 효능감은 정신장애인이 직업을 유지하거나 이직을 시도할 때, 향후 직업재활에 관련된 의미 있는 지표로 해석될 수 있다(Härkäpää, Järvikoski, & Gould, 2014; Waghorn, Chant, & King, 2005). 정신장애인이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고 불가능할 것 같았던 ‘평범한 일상’을 되찾게 된다면 그는 장애와의 공존을 인정하고 변화된 삶을 살게 될 것이다(Um & Choi, 2022).

국제노동기구(ILO), 유엔개발계획(UNDP)과 함께 나이지리아 Oyo주 정부에서 적극 추진한 지역사회중심 직업재활(Community-Based Vocational Rehabilitation, CBVR)은 위의 결과가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CBVR이란, 장애인이 속한 지역 및 공동체 내에서 자립을 시도하도록 돕는 직업재활 모델이다. 해당 프로그램의 참여자는 개인의 자

원, 선호, 관심사에 따라 직무를 선택한 뒤 지역 전문가에게 충분한 기간 훈련받고 일을 시작하였다. 그 결과 90%의 장애인이 성공적인 직업 생활을 이어 나가고, 장애에 대한 자기 및 주변의 인식이 개선되었으며, 새로운 미래를 기대하게 되었다(Alade, 2004). 이는 장애인이 스스로 결정한 직무를 통해 자기효능감을 느끼고 자연스럽게 장애수용을 달성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한편, 본 연구 결과와 나이지리아 사례는 정신장애인의 고용 여부가 무조건 장애수용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드러낸다. 고용이 장애수용으로 이어지는 과정에 자기효능감이 완전매개 효과를 가진다는 점, 그리고 CBVR이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여 효능감을 발휘하게 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Ryan과 Deci(2000)의 자기결정이론(Self-Determination Theory, SDT)에서는 ‘유능성에 대한 지각’만으로는 부족하고, ‘선택을 경험하는 자율성’이 수반될 때 비로소 인간이 최적의 기능을 발휘하여 웰빙을 실현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Develos-Sacdalan과 Bozkus(2018)의 연구에서도 자기결정성과 자기효능감은 정적 관계가 있었다. 이는 모든 절차에서 강제성을 띤 직무 내용이라면 정신장애인의 자기효능감, 궁극적으로는 장애수용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오늘날 미국, 영국, 호주를 포함한 세계 여러 나라에서 개별 배치 및 지원(Individual Placement and Support, IPS)이라는 이름 아래 정신장애인의 자율성을 존중한 CBVR을 시행하고 있다. IPS에 참여하는 정신장애인은 다른 형태의 직업 재활에 참여하는 대조군보다 직업을 유지하는 기간이 4배 더 길었고, 일하는 시간은 3배 더 길었으며, 임금도 3배 정도 더 많이 받았다.

IPS는 근거기반 접근의 직업재활로 입원 중심의 정신재활보다 훨씬 효율적이며, 정신장애인 사이에서 그 효과성이 꾸준히 입증되고 있다(Bond, Drake, & Becker, 2020).

지난 2013년 OECD는 한국의 정신건강 의료체계가 지역사회 치료 모델로 전환될 필요가 있음을 권고하였지만, 그에 대한 성과는 아직 미흡한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국가인권위원회, 2021; 김태희, 양윤준, 2013; 보건복지부, 2022). 여러 나라의 IPS 사례를 참고하여 직업재활을 기획하는 단계부터 당사자의 선호와 의사를 반영하고, 그들이 친숙해하는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할 때 정신장애인의 장애수용 및 사회 통합이 원활하게 성취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추가로, 정신장애인이 고용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사례관리를 받는 시스템이 갖추어진다면 그들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더욱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World Health Organization(2011)의 장애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장애급여 신청자의 대다수는 정신장애인이다. 장애급여(장애인연금)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중증장애인에게 생활 보전의 명목으로 지급되는 사회복지 급여를 말한다. 만약 정신장애인이 어딘가에 고용되어 수익이 발생하면 소득 조건 초과로 인해 장애급여를 받기 어려워질 수 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정신장애인이 직업을 통해 벌 수 있는 금액과 장애급여의 차이가 크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직업활동을 원하는 정신장애인이라도, 사회적인 편견과 거절감을 온전히 느끼며 필사적으로 취직하기보다 장애급여를 받는 쪽을 선택하게 될 것이다(이금진, 2010). 그만큼 현시대의 정신장애인이 체감하는 고용 장벽이 높고, 이를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실용성이 낮은

편이다. 이를 반영하듯 국내 정신장애인의 고용률은 인구수 대비 15.7%로 다른 장애인보다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배경은 알 수 없으나 본 자료에서 취업을 희망하지 않는 정신장애인이 338명(35.5%)이었다. 정신장애인에게 직업의 의미는 단순히 경제적 이득만을 위한 수단이 아니다. 병원 입/퇴원만 반복해서는 누릴 수 없는, 경제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누릴 수 있는 긍정적 효과가 이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정신장애인의 편에서 회복을 바란다면 직업을 통해 ‘자발성에서 오는 효능감’을 느낄 수 있도록, 개개인의 선호를 고려한 친절한 접근이 필요하다. 동시에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도 꾸준히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장애급여 수급에서 직장급여로 전환하려는 과도기적인 시기에 안정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고용 안정 및 최저임금 보장 등의 실질적인 정책도 절실해 보인다.

인간은 노동을 통해 경제적으로 필요한 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의미 있는 사회적 역할을 습득한다(Cohn, 1978). 고용의 경험이 부족한 정신장애인은 사회적 소속감을 느끼거나 사회 통합을 준비하는 과정이 더딜 수밖에 없다(Evans & Repper, 2000). 여전히 그들은 정신장애로 인해 사회로부터 분리된 삶을 살고,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과는 거리가 있는 삶을 산다. 일차적인 해결을 위해, 직업재활에 수동적인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고용과 회복의 중요성을 학습시키는 정기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유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직업에 대한 태도, 가치, 인식’을 의미하는 직업인성과 직업인식이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아지므로(이달엽, 김다혜,

이승욱, 2004) 직업재활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될 수밖에 없다. 여러 가지 작은 성취를 시작으로 자기 낙인을 개선하는 것이 당사자에게 부담스럽지 않은 동기 부여가 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자기결정권이 보장되는 경제활동을 경험하면 자기효능감이 함양되고, 자연스럽게 장애수용에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와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패널 자료의 사용으로 설문 구성에 자유롭지 못하였다. 대부분의 응답 목록에 모름/응답 거부(결측치)가 포함되어 있어 분석마다  $n$  수가 다르게 집계되었다. 후속 연구에서는 정확한 결과 산출을 위해 성실한 응답을 권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직장 내 차별, 비정규직으로서의 잦은 실직, 기능 제한에 따른 업무배제와 같은 고용환경은 정신장애인의 자기효능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본 연구 결과도 이에 대한 충분한 고려와 함께 일반화에 주의가 필요하다. 향후 연구에서 고용환경과 자기효능감, 장애수용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고용 관련 변인 중에서도 고용 여부만을 다루었다. 패널 자료에서 취업자에 해당하는 135명(25.8%) 중 정규직이 37명(27.4%), 비정규직이 88명(65.2%)으로 응답자의 수가 균형을 이루지 않아 구체적인 비교가 어려웠다. 후속 연구에서는 고용 변인을 세분화하여 설정하고 그에 대한 충분한 응답을 수집하여, 여러 고용 형태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는 것도 유의할 것이다.

위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가지는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신장애인에 초점을 두어 고용의 영역에서 회복을 설명하였다. 정신장애인의 직업활동은 그들이 장애수용을 성취하도록 하는 중요한 밑거름이 된다. 이는

정신장애인의 반복된 입/퇴원을 의미하는 회전문 현상을 타파하고, 더 나아가 성공적인 사회 통합을 기대하게 한다. 둘째, 정신장애인의 고용을 배경으로 자기효능감의 효과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자기 결정을 존중받지 못하는 정신장애인의 재활 환경에 자기효능감의 중요성을 알리는 경험적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국내 정신장애인의 고용환경 및 직업재활 프로그램의 발전을 위한 논의점을 제시하였다. 고용 현장에서는 정신장애인의 증상을 먼저 이해하고, 당사자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정부는 정신장애인의 상황을 고려한 적절한 고용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며, 정신장애와 관련된 사회적 편견 또한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강석임 (2011). 시설거주 정신장애인의 회복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보건과 사회과학*, 30, 97-129.

강용주, 박자경, 구인순 (2008). 자아인식, 자아수용검사 타당화 연구. 성남: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

고민석, 김동주 (2013). 중증장애근로자의 장애로 인한 차별경험과 일상생활만족도와와의 관계. *한국웰니스학회지*, 8(2), 105-114.

국가인권위원회 (2021). *정신장애인 인권 보고서(2021)*.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국립정신건강센터 (2020). *국가 정신건강현황 보고서 2019*. 서울: 국립정신건강센터.

김가희, 이종남, 한상미 (2019). 장애인의 생애주기별 장애수용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재활복지*, 23(4), 143-166.

김동주, 고민석 (2012). 직장 내 차별이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직장만족과 장애수용에 미치는 영향. *직업재활연구*, 22(2), 5-29.

김자경, 신보희, 장성욱 (2017). 장애대학생의 장애수용과 대인관계능력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7(14), 65-82.

김종일 (2013). 장애인근로자의 장애수용, 차별경험, 사회경제적 지위가 직무만족과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장애와 고용*, 23(4), 59-84.

김태희, 양윤준 (2013). 한국인의 정신건강: 2013년 OECD 조사 및 권고안 요약본 번역. *가정의학*, 3(3), 236-239.

남연희, 채인석 (2009). 취업한 정신장애인의 직업유지에 관한 연구 - 직무만족, 자기효능감, 취업의지, 직업적응능력, 직업환경만족도를 중심으로. *직업재활연구*, 19(1), 187-201.

박경수, 이석호 (2015). 장애인의 장애수용이 기초생활보장 수급탈피 의향에 미치는 영향: 고용서비스 이용경험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장애와 고용*, 25(4), 89 - 110.

보건복지부 (2022). *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2021~2025)*. 세종: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 세종: 보건복지부.

백영승, 김성희, 유미, 김춘수 (2001). 자아인식 검사 개발 연구보고서. 성남: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

손명자 (2006). 정신장애인을 위한 직업재활.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5(1), 25-57.

신주영, 최은영, 공마리아 (2015). 교통장애인의 자기효능감과 장애수용이 사회통합에

- 미치는 영향-재활동기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54(2), 501-522.
- 안은선, 서지민 (2015). 정신장애인의 직업재활동기 개념분석. 정신간호학회지, 24(4), 279-289.
- 양혜린, 고윤정, 박연미, 이혜란 (2017). 차별경험과 자기효능감이 후천적 지체장애인의 장애수용에 미치는 영향: 조건부 과정 모델링을 통한 사회참여 활동의 역할을 중심으로. 장애와 고용, 27(3), 89-112.
- 윤미리, 남예지, 홍세희 (2019).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자기효능감과 장애수용 간의 구조관계 검증: 직무몰입과 일자리만족도의 직렬다중매개모형 분석을 중심으로. 장애와 고용, 29(2), 105-134.
- 이금진 (2010). 정신장애인의 취업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2(1), 237-261.
- 이달엽, 김다혜, 이승욱 (2004). 직업훈련 프로그램이 장애인 직업준비도에 미치는 효과. 재활복지, 8(1), 111-143.
- 정승원 (2012). 고용관련 환경요인이 장애당사자의 장애수용에 미치는 영향. 장애와 고용, 22(4), 323-350.
- Ackerman, G. W., & McReynolds, C. J. (2005). Strategies to promote successful employment of people with psychiatric disabilities. *Journal of Applied Rehabilitation Counseling*, 36(4), 35-40.
- Alade, E. B. (2004). Community based vocational rehabilitation (CBVR)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Experiences from a pilot project in Nigeria. *British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31(3), 143-149.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5th ed.).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ic Publishing.
- Andresen, R., Caputi, P., & Oades, L. (2006). Stages of recovery instrument: Development of a measure of recovery from serious mental illness. *Australian & New Zealand Journal of Psychiatry*, 40(11-12), 972-980.
- Anthony, W. A. (1993). Recovery from mental illness: The guiding vision of the mental health service system in the 1990s. *Psychosocial Rehabilitation Journal*, 16(4), 11-23.
- Anthony, W. A., Rogers, E. S., Cohen, M., & Davies, R. R. (1995). Relationships between psychiatric symptomatology, work skills, and future vocational performances. *Psychiatric Services*, 46(4), 353-358.
- Bandura, A. (1986). The explanatory and predictive scope of self-efficacy theory.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4(3), 359-373.
- Bond, G. R., Drake, R. E., & Becker, D. R. (2020). An update on Individual Placement and Support. *World Psychiatry*, 19(3), 390-391.
- Brohan, E., Elgie, R., Sartorius, N., Thornicroft, G., & GAMIAN-Europe Study Group. (2010). Self-stigma, empowerment, and perceived discrimination among people with schizophrenia in 14 European countries: The GAMIAN-Europe study. *Schizophrenia Research*, 122(1-3), 232-238.
- Cohn, R. M. (1978). The effect of employment status change on self-attitudes. *Social Psychology*, 41(2), 81-93.
- Corrigan, P. W., & Rao, D. (2012). On the

- self-stigma of mental illness: Stages, disclosure, and strategies for change. *The Canadian Journal of Psychiatry*, 57(8), 464-469.
- Davidson, L., & Strauss, J. S. (1992). Sense of self in recovery from severe mental illness. *British Journal of Medical Psychology*, 65(2), 131-145.
- Deegan, P. E. (1988). Recovery: The lived experience of rehabilitation. *Psychosocial Rehabilitation Journal*, 11(4), 11-19.
- Develos-Sacdalán, K., & Bozkus, K. (2018). The mediator role of resilience between self-determination and self-efficacy. *Education Science and Psychology*, 4(50), 49-60.
- Drake, R., & Wallach, M. (2020). Employment is a critical mental health intervention. *Epidemiology and Psychiatric Sciences*, 29, e178.
- Dunn, E. C., Wewiorski, N. J., & Rogers, E. S. (2008). The meaning and importance of employment to people in recovery from serious mental illness: Results of a qualitative study. *Psychiatric Rehabilitation Journal*, 32(1), 59-62.
- Evans, J., & Repper, J. (2000). Employment, social inclusion and mental health. *Journal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7(1), 15-24.
- Fabian, E. S. (2000). Social cognitive theory of careers and individuals with serious mental health disorders: Implications for psychiatric rehabilitation programs. *Psychiatric Rehabilitation Journal*, 23(3), 262-269.
- Härköpää, K., Järviöskö, A., & Gould, R. (2014). Motivational orientation of people participating in vocational rehabilitation. *Journal of Occupational Rehabilitation*, 24(4), 658-669.
- Hayes, A. F. (2022).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NY: Guilford press.
- Kaiser, S. B., Wingate, S. B., Freeman, C. M., & Chandler, J. L. (1987). Acceptance of physical disability and attitudes toward personal appearance. *Rehabilitation Psychology*, 32(1), 51-58.
- Kline, R. B. (2015).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NY: Guilford press.
- Lagerveld, S. E., Blonk, R. W., Brenninkmeijer, V., Wijngaards-de Meij, L., & Schaufeli, W. B. (2012). Work-focused treatment of common mental disorders and return to work: A comparative outcome study.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Psychology*, 17(2), 220-234.
- Latham, G. P., & Locke, E. A. (1991). Self-regulation through goal setting.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50(2), 212-247.
- Li, L., & Moore, D. (1998). Acceptance of disability and its correlates. *Th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38(1), 13-25.
- Maujean, A., & Davis, P. (2013).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fficacy and well-being in stroke survivors. *International Journal of Physical Medicine & Rehabilitation*, 1(7), 1-10.
- McKee-Ryan, F., Song, Z., Wanberg, C. R., & Kinicki, A. J. (2005). Psychological and physical well-being during unemployment: A meta-analytic study.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90(1), 53-76.
- Ryan, R. M., & Deci, E. L. (2000). Self-determination theory and the facilitation

- of intrinsic motivation, social development, and well-being. *American Psychologist*, 55(1), 68-78.
- Ritsher, J. B., & Phelan, J. C. (2004). Internalized stigma predicts erosion of morale among psychiatric outpatients. *Psychiatry Research*, 129(3), 257-265.
- Schwarzer, R., & Jerusalem, M. (1995). Generalized self-efficacy scale. In J. Weinman, S. Wright, & M. Johnston (Eds.), *Measures in health psychology: A user's portfolio. Causal and control beliefs* (pp. 35-37). Windsor, UK: NFER-NELSON.
- Siu, P. S., Tsang, H. W., & Bond, G. R. (2010). Nonvocational outcomes for clients with severe mental illness. *Journal of Vocational Rehabilitation*, 32(1), 15-24.
- Strong, S. (1998). Meaningful work in supportive environments: Experiences with the recovery process. *American Journal of Occupational Therapy*, 52(1), 31-38.
- Tsang, H. W., Fong, M. W., Fung, M. T., & Corrigan, P. W. (2010). Reducing employers' stigma by supported employment. In C. Lloyd (Ed.), *Vocational rehabilitation and mental health* (pp. 51-64). NJ: Wiley Blackwell.
- Um, Y. J., & Choi, Y. J. (2022). The effect of employment status on people with a mental disability and on daily life satisfaction: The mediating effect of acceptance of disability. *Current Psychology*, 41, 6267-6274.
- Waghorn, G., Chant, D., & King, R. (2005). Work-related self-efficacy among community residents with psychiatric disabilities. *Psychiatric Rehabilitation Journal*, 29(2), 105-113.
- Watson, A. C., Corrigan, P., Larson, J. E., & Sells, M. (2007). Self-stigma in people with mental illness. *Schizophrenia Bulletin*, 33(6), 1312-1318.
- World Health Organization. (2011). *World report on disability 2011*. Switzerland: WHO press.
- Yehene, E., Lichtenstern, G., Harel, Y., Druckman, E., & Sacher, Y. (2020). Self-efficacy and acceptance of disability following mild traumatic brain injury: A pilot study. *Applied Neuropsychology: Adult*, 27(5), 468-477.

원고접수일 : 2022. 07. 04.

수정원고접수일 : 2022. 09. 20.

게재확정일 : 2022. 09. 28.

##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fficac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mployment Status and Disability Acceptance in Adults with Mental Illnesses

Chowon Park<sup>1)†</sup>

Myoung-Ho Hyun<sup>2)‡</sup>

<sup>1)</sup>Department of Psychiatry,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Researcher

<sup>2)</sup>Department of Psychology, Chung-Ang University, Professor

**Purpose:** This study aimed to explore and illustrate the relationship between employment status, self-efficacy, and disability acceptance in community-dwelling adults with mental illnesses aged 20-67 years.

**Method:** The fourth dataset of the second wave of the Panel Survey of Employment for the Disabled (PSED) was analyzed using Hayes (2022) SPSS PROCESS Macro (model 4).

**Results:** Self-efficacy significant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employment status and disability acceptance, whereas the direct effect of employment status on disability acceptance was not significant.

**Conclusion:** The employment status of adults with mental illnesses is positively associated with self-efficacy and predictive of disability acceptance. This study suggests the need for governments to establish social resources to support vocational recovery, emphasizing the strengthening of self-efficacy.

*Key words : mental illness, employment, vocational rehabilitation, self-efficacy, disability acceptance*

---

† Department of Psychiatry, Severance Hospital

‡ Corresponding Author : Myoung-Ho Hyun / Department of Psychology, Chung-Ang University / 84 Heukseok-ro, Dongjak-gu, Seoul, Korea / E-mail : hyunmh@cau.ac.kr